

# ‘텍스트힙’ 시대, 표지로 만나는 ‘책의 얼굴들’

광주신세계갤러리, 봄 기획전 ‘책의 얼굴들’...내달 21일까지

## 독립서점 ‘책과 생활’ 협업 원화·도서·굿즈·체험 결합

책을 펼치기 전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은 언제나 ‘표지’다. 한 장의 이미지에 압축된 이야기의 단서와 독서를 향한 첫 감각이 이 전시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펼쳐진다.

광주신세계갤러리가 봄 기획전 ‘책의 얼굴들’을 열고, 책 표지를 중심으로 한 회화와 출판 디자인의 관계를 다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최근 북페어 열풍과 함께 젊은 층을 중심으로 책을 소비하는 문화가 확산되는 흐름 속, 이번 전시는 책을 둘러싼 시각적 경험에 주목한다.

전시에는 기묘, 김민주, 안소현, 윤연우, 장명, KATH(캐스) 등 6명의 작가가 참여해 책 표지로 쓰인 그림들을 전시로 선보인다.

전시장은 원화 60여점과 실제 표지로 사용된 도서도 함께 선보이고 있다. 하나의 이미지가 책이라는 매체 안에서 어떻게 변주되는지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했다.

지난 17일 찾은 갤러리 공간은 ‘전시’와 ‘서점’, 그리고 ‘체험 공간’이 자연스럽게

융합 조화를 이룬 모습이었다. 평일 낮 시간임에도 관람객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졌다. 작품 앞에 서서 그림을 들여다보거나 테이블에 앉아 책을 보는 이들, 굿즈를 고르는 사람들까지 공간 곳곳에서 다양한 풍경이 펼쳐졌다.

특히 작품 옆에 실제 책 표지를 함께 배치한 구성은 관람의 재미를 더했다. 원화와 인쇄된 표지 사이의 색깔과 질감의 차이를 비교하며 보는 경험은 책이라는 매체의 특성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했다.

작가들의 면면 역시 눈길을 끈다. 광주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윤연우 작가는 회화와 테피스트리 작업을 병행하며, 기존 작업이 책 표지로 사용되기도 했다.

장명 작가는 배우 박정민이 운영하는 출판사 무제의 첫 베스트셀러 ‘첫 여름, 완주’ 표지를 작업한 일러스트로 주목받았으며, 재치 있는 만화적 표현이 돋보인다.

식물과 자연의 미세한 결을 포착한 김민주 작가의 회화는 책 표지와 관계를 보여주고, 색연필의 질감을 살린 KATH 작가의 삽화는 따뜻한 이미지를 전한다.

여기에 디지털 작업 특유의 모호한 화면을 선



KATH 작가의 원화 작품과 책 표지가 함께 진열돼 있다.

보이는 기묘 작가, 정서적 여백이 살아 있는 이미지로 책과의 조화를 이끄는 안소현 작가까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책의 이미지를 확장한다.

참여 작가들은 자신들의 표지 작업이 갤러리 공간에서 하나의 작품으로 다시 전시되는 경험에 의미를 두고 있다. 책으로만 접할 수 있었던 이미지가 전시 공간에서 선보이며 새로운 시선으로 다가온다는 점에서도.

이번 전시는 광주 동명동의 독립서점 ‘책과 생활’과 협업해 더욱 확장된 형태로 구현됐다. 전시장에서는 도서와 함께 엽서와 포스터, 오브제, 키링 등 다양한 굿즈를 만나볼 수 있으며 현장에

서 구매도 가능하다. 전시 관람을 넘어 ‘보고-읽고-사는’ 경험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진다.

공간 구성 역시 눈에 띈다. 전시장 중앙에는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는 열람 공간이 자리 잡았다. 한쪽에는 ‘문장 채집소’가 마련돼 관람객이 질문 카드에 자신의 생각을 적어 벽에 붙이고, 다른 이들의 문장을 함께 읽어볼 수 있다.

여기에 공간의 감각을 확장하는 장치로 향기 연출도 더해졌다. 백화점 내 갤러리라는 특성을 반영해 온갖 사소한 향을 배치하고 한쪽은 포근한 방처럼, 다른 한쪽은 세련된 상점처럼 분위기를 달리했다.



전시장에서 만날 수 있는 참여 작가들의 굿즈 작품.

이밖에도 책 표지를 활용한 스탬프 판화 엽서 제작, 문장 필사 등 체험이 마련돼 있어 아이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다. 백화점 내 갤러리라는 특성에 맞게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시로 기획된 점이 현장에서도 체감된다. 전시는 오는 4월 21일까지 이어진다. /글·사진=최명진 기자



## 푸른 숲의 상처와 회복을 그리다

광주동구문화관광재단, 내달 19일까지 일러스트레이터 펀그린 개인전

자연의 상처와 회복의 과정을 푸른 색채로 풀이한 회화 전시가 마련됐다.

광주동구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문창현)은 오는 4월 19일까지 동구 흥학관(동구 문화전당로35번길 8) 2층 갤러리에서 일러스트레이터 펀그린 개인전 ‘다시 태어나는 공간, 숲’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자연의 상처와 회복, 생명의 순환을 주제로 한 펀그린의 평면 회화 작품 29점을 선보인다.

전시는 재단이 운영하는 ‘인문도시 전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작가

에게 전시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전시가 열리는 흥학관 2층 갤러리는 최근 문을 연 카페 겸 문화공간이다. 동구문화관광재단과의 협약을 통해 전시 공간을 무상 대관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지역 예술가들에게 전시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예술을 접할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전시 공모를 통해 선정된 펀그린 작가는 배어저 나간 제주 비자림의 풍경을 목격한 경험

을 계기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울창했던 숲이 생명을 잃고 빈 공간으로 변해가는 장면을 바라보며 느낀 상실과 슬픔 속에서 자연의 공백과 치유의 가능성을 탐색하며 숲을 그려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아크릴과 과슈를 활용해 푸르름의 감각을 강조한 회화 작업을 선보인다. ‘그레오’, ‘봉대 감기’ 등의 작품은 상처 입은 대상의 마음을 채우는 자연의 에너지를 시각화한 작업이다. 화면 속 겹겹이 쌓인 푸른 색감은 시간이 축적된 풍경을 담아내며, 자연의 단단함과 회복의 힘을 드러낸다.

또한 그의 작품은 개인의 경험이 공동체의 기억과 만나는 순간을 포착한다. 작품 ‘파랑 보네 네 생각’은 가족 간의 교류와 애정, 바다를 매개로 쌓아온 기억을 담아낸 작업이다.

/최명진 기자

## 정연우 시인 ‘에세이스트’ 신인상 수상

담양에서 활동하는 정연우(사진) 시인이 에세이 부문 신인상을 수상하며 문단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정연우 시인은 지난 14일 서울시청 신청사에서 열린 격월간 ‘에세이스트’ 주관 신인상 시상식에서 수상자로 선정됐다.

정 시인은 2010년 계간 ‘문학춘추’ 시 당선을 시작으로 작품 활동을 이어왔다. 이후 ‘시조시학’ 겨울호 시조 부문 신인상에 이어 ‘에세이스트’ 제125호에서 에세이 부문 신인상을 수상하며 문학적 역량을 입증했다.

이번 수상작 ‘일상의 미학과 생태적 감수성’은 자연 속 존재들의 질서와 배려를 통해 삶의 본질을 성찰한 작품이다.

숲의 나무들이 서로를 위해 햇살을 양보하고, 잎사귀가 스스로 물러나 자리를 내어주는 장면 등을 통해 인간 사회에 울림을 전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심사를 맡은 평론가 박일철은 “동양 고전 시학의 ‘선경후정’을 변주해 풍경과 감정을 자연스럽게 어우러냈다”며 “자연의 질서 속에서 삶의 의미를 깊어 올리는 예리한 관찰자”라고 평



했다.

정 시인은 현재 곡성 지역 어르신들의 삶을 기록하는 집필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담양 ‘산아래시 연우책방’을 중심으로 문학과 인문학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시로 청하는 식이도감’, ‘인문학 샌드위치’ 등 강의를 통해 건강한 먹거리와 시 읽기를 접목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정 시인은 “문학이 나를 살게 한다는 사실에 깊이 감사한다”며 “앞으로도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노래하는 작품과 강의로 독자들과 만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담양 소아르네새 내 ‘달콤한잔’과 함께 운영되는 연우책방은 시집과 인문학 강의가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이다. /최명진 기자



2025 대통령 표창 수상단체  
시민협동조합 한국나눔연맹  
KOREA SHARING FEDERATION

# 꽃피는 봄에도, 어르신들의 밥상에 여전히 찬바람만 불니다.

텅 빈 냉장고, 다쉬어버린 김치, 말라붙은 라면 국물.  
월 2만원, 정기후원으로 외로운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봄을 선물해 주세요.

#사랑의 도시락 배달

#전국 26개소 무료급식소 운영

#독거노인 기초생활 개선지원



QR 인식

ARS 무기명 후원

## 060-708-1004 (1만원)

후원문의

## 1811-1004